



Analyst 유승우 · 02-3773-9180 · yswbest@sk.com

Issue Comment

- ✓ 최근 현대미포조선 주가가 지나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음
- ✓ STX 조선해양에서 취소된 MR 탱커 물량 수주 가능
- ✓ 러시아 소브콤플로트 MR 탱커도 수주 가능성이 보임

현대미포조선 수주 모멘텀 감안시 최근 주가 낙폭은 지나침

7월 11일 현대미포조선의 주가는 전일 대비 5.67% 하락한 81,500 원에 마감했다. 이는 작년 말 조선사들의 유상증자 발표 이후 하락했던 때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낙폭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왜냐하면 현대미포조선만큼 국내 조선사 중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는 조선사가 없기 때문이다.

TradeWinds에 따르면 STX 조선해양이 수주한 MR 탱커 9 척 가량이 산업은행이 RG 발급을 제한하며 계약이 취소되었고, 발주처인 Sincere Navigation은 발주 물량을 건조할 수 있는 다른 조선사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MR 탱커를 안정적으로 건조 및 인도할 수 있는 조선소는 현대미포조선이기 때문에 해당 물량은 현대미포조선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달 대통령께서 조선 3사 고위급 임원들과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소브콤플로트가 MR 탱커를 발주할 계획이라는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다. 즉, 작년부터 이어진 MR 탱커 수주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최근의 주가 하락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과도하게 빠진 현대미포조선 주가



Sincere Navigation은 MR 탱커 선대를 지속 확대 예정

Sincere Navigation's plan to diversify into the medium range (MR) products tanker sector has hit a snag as a newbuilding order failed to materialise... (중략)... Sincere's order would appear to be one of nine tanker contracts reported last week by TradeWinds as hanging in the balance after KDB decided not to approve newbuildings and refund guarantees. Sincere says the failed order is not going to stop the company from expanding into the MR tanker segment. "We are in contact with other shipyards for the newbuilding," said the Sincere executive. (후략)

자료 : DataGuide, SK 증권

자료 : TradeWinds (2018-07-11),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 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